이베로아메리카 제3집(2001년)

성 도밍고 섬의 약혼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 지음
배 중 환 옮김*

성 도밍고 섬(역주: 오늘날의 하이티Haiti 섬)의 프랑스 영토인 포르토 프랭스에서 흑인들이 백인을 학살했던 19 세기 초, 기욤 폰 비뇌브의 농장에, 콩고 호앙고라는 이름의 무서운 늙은 흑인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의 황금해안 출신으로 젊을 때부터 성실하고 정의로운 감정을 지닌 듯이 보였으며, 한 때 쿠바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그가 주인의 생명을 구해주어 그 주인에게서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받았다. 주인 기욤 씨는 그를 당장 노예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었으며, 성 도밍고로 돌아왔을 때는 집과 농장을 주었다. 그 뿐만 아니라, 몇 년 후 그 지방의 관습과는 달리, 그는 호앙고를 자신의 광대한 재산 관리자로 임명했으며, 재혼하기를 원치 않는 호앙고에게 부인 대신 자신의 죽은 첫 아내 쪽과 먼 친척 관계에 있는, 자기 농장출신의 바베칸이라는 늙은 혼혈여인(Mulattin, 역주: 흑인과 백인의 혼혈)을 결합시켜주었다. 게다가 그 흑인이 예순 살이 되었을 때, 주인은 그에게 상당한 은급을 주고 은퇴시켰고, 그의 선행에 영예를 주었으며, 자기 유언장에 그를 유산상속자로 기록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감사의 표시도, 이 잔인한 흑인이 분노했을 때, 비뇌브 씨의 생명을 구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콩고 호앙고는, 프랑스 국민회의의 실수로 식민지에서 복수의 대폭동이 일제히 타올랐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총을 잡고, 자기를 조국에서 잡아 온

* 부산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전제정치를 기억하면서 자기 주인의 머리에 총을 쏘았다. 그는 비뇌브 씨의 부인이 세 아이들 그리고 그 밖의 식민지 백인들과 함께 피난하고 있던 집에 불을 지르고, 포르 토 프랭스에 사는 유족들에게 돌아가야 할 전 농장을 황폐화시켰으며, 그들 소유의 모든 건물을 폐허로 만들었고, 자기가 모아 무장시킨 흑인들을 데리고, 백인들에게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자기 동료들을 돕기 위해 그 부근을 배회하고 있었다. 때로는 무장을 한 채 무리 지어서 그 지방을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숨어서 기다리거나, 때로는 대낮에 자기들 집에 숨어 있는 이주민들을 습격해서, 그 안에서 찾아낸 모든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였다. 그렇다, 그는 비인간적인 복수심을 불태우며, 그 늙은 바베칸과 그녀의 열 다섯 살짜리 딸 토니라는 혼혈아(Mestize, 역주: Mulattin과 백인남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에게도 이 잔인한 전투에 참가할 것을 요구했다. 실로 그는 자기 나이도 잊은 채 그 전투에 열중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살고 있는 농장의 본관이 큰길에서 외딴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그가 부재중일 때에는 백인이나 식민지에서 태어난 유럽인 2세가 피난 도중에 나타나 그 집에서 음식이나 잠자리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것을 안 그는, 자신이 늘 그렇게 불러왔던, 개 같은 백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도와주는 척하며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붙들어 두라고 여자들에게 지시했다. 젊은 시절에 끔찍한 형벌을 받아 폐병을 앓고 있던 바베칸은, 그런 경우에, 젊은 토니의 얼굴색이 황색으로 변해가고 있으므로, 끔찍한 간계에 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녀에게 늘 가장 훌륭한 옷을 차려 입혔다. 그녀는 딸을 격려하며 낯선 이에게 애무해 주는 것은 금지시키지 않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일만은 죽음의 벌로써 금지했다. 콩고 호앙고가 흑인 무리들과 함께 이 주변의 원정을 끝마치고 돌아오면, 이 간계에 속아넘어간 불쌍한 백인들은 즉시 죽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1803년 데살린 장군(역주: 원래는 흑인 노예였으나, 1803년 이후 반란군의 총사령관이 됨)이 30,000 명의 흑인들을 이끌고 포르 토 프랭스로 진격했을 때, 피부가 흰 사람은 누구나 이곳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로 모여들었다. 왜냐하면 이 곳이 이 섬에서 프랑스 군대의 마지막 거점이었으므로, 이곳이 무너지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백인들은 구제 받지 못하고 멸망하기 때문이었다. 그때 마침 늙은 호앙고는 자기 주변의 흑인들을 이끌고, 프랑스군 진지를 뚫고, 데살린 장군에게 탄약을 수송해 주기 위해 집을 떠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폭풍이 치고 비가 오는 칠흑 같은 밤에 그의 집 뒷문을 두드렸다. 늙은 바베칸은 이미 잠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 허리에 치마를 걸치고 창문을 열며, 누구냐고 물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낯선 이가 낮은 소리로 대답했고, 그는 창문 아래에 서면서, "제가 누구인가를 말하기 전에 질문에 답하시오!" 그러면서 그는 밤의 어둠 속으로 노파의 손을 잡기 위해 손을 내밀며 물었다. "당신은 흑인 여자이지요?" 바베칸은 대답했다. 그런데 당신은 틀림없이 백인이지요, 그래서 이 칠흑의 밤이 흑인 여자의 얼굴을 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낫지요. 들어오세요. 그녀는 말을 덧붙였다. 접내지 마세요. 여기에 살고 있는 나는 흑인과 백인의 혼혈녀(Mulattin)인데, 나 이외에도 이 집에는 딸이 하나 있으며 그 애도 역시 혼혈아(Mestize)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마치 아래로 내려가 그에게 문을 열어 주려는 듯 창문을 닫았다. 그러나 그녀는 열쇠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핑계로, 옷장에서 옷가지 몇 개를 꺼내들고 2층 방으로 기어올라가, 딸을 깨웠다. "토니!"하고 그녀는 불렀다, "토니!" —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요? — "빨리!" 그녀가 말했다. "일어나서 옷을 입어라. 여기에 옷이 있어. 흰 속옷과 양발을 신어라. 쫓기고 있는 한 백인이 문 앞에 서서 들어오기를 원한다." — 토니는 물었다. 백인이요? 그러면서 그녀는 침대에서 반쯤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노파가 손에 들고 있던 옷을 받으며 말했다. 그는 혼자 입니까, 어머니, 그를 들여놓았다가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 "아무 걱정 없어, 걱정 없어!" 노파가 불을 켜면서 대답했다. "그는 무기도 없고 혼자야, 더구나 우리가 그를 급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전신을 떨고 있어!" 토니가 일어나 치마를 걸치고 양말을 신는 사이에, 그녀는 방 구석에 있던 큰 등에 불을 붙이고, 토니의 머리

카락을 신속히 그 지방의 풍습에 따라 머리 위로 묶어주었고, 그녀의 가슴 끈을 죄어 준 후, 모자를 씌우고 등불을 손에 쥐어 주면서, 마당으로 내려가서 낯선 남자를 데리고 들어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는 동안에 몇 마리의 개들이 계속 짖었고, 호앙고가 어느 흑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사생아, 이름이 낭키라는 소년이 그의 동생 제피와 함께 옆 건물에서 자고 있다가 깨었다. 그는 달빛 속에 집의 뒷 계단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즉시, 그런 경우에 지시 받은 대로, 달려가 바로 그 낯선 남자가 들어왔던 마당 문을 잠그기 위해 달려갔다. 이 조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그 낯선 남자는, 그 소년이 자기 옆에 가까이 섰을 때 그가 흑인 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며 그에게 이 농장에는 누가 사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 농장은 주인 비뇌브가 죽은 후 흑인 호앙고의 소유가 되었다"는 소년의 대답을 듣고, 그를 넘어뜨리고 그의 손에 있는 마당 문의 열쇠를 빼앗아 도망가려고 했다. 그 때, 토니가 손에 등불을 들고 집 앞으로 나왔다. "빨리, 이리로 들어오세요!" 그녀가 외치며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문 쪽으로 당겼다. 그러면서 그녀는 불빛이 환하게 얼굴에 비치도록, 불을 들어올렸다. —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낯선 남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놀라며, 사랑스런 그녀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반항적으로 물었다. 이 집에는 누가 살며, 여기서 내가 당신의 말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 "어머니와 저 이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 처녀는 낯선 남자를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뭐, 아무도 없다고! 그 낯선 남자가 외쳤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손을 뿌리치며, 호앙고라는 흑인이 이 집에 살고 있다고 이 소년이 나에게 방금 말하지 않았는가?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녀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발로 땅을 구르면서 말했다. "그런 이름의 폭군이 이 집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는 지금 이 순간 집에 없으며, 여기서 10 마일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소년에게 아무에게도 누가 왔다고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문에 가서 그 낯선 남자를 두 손으로 잡고 집안으로 끌어

당겨 그를 계단 위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창문 가에서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또 불빛을 통해 그가 장교라는 것을 안 그 노파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신중하게 팔 밑에 차고 있는 그 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라며 안경을 쓰면서 덧붙여 말했다. "우리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집에 도피처를 제공합니다. 들어오세요, 이 선행을 당신 동족들의 관습에 따라 배반으로 갚겠습니까?" —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낯선 남자는 그녀의 의자 앞으로 바싹 다가서며 대답했다. 그는 노파의 손을 잡고, 그 손을 가슴에 대고, 겁을 먹은 눈길로 몇 번 방을 둘러본 후,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풀면서 말했다. 당신들은 모든 사람들 중 가장 불쌍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 "당신은 누구시죠?" 라고 노파가 물으면서 의자 하나를 그에게 발로 밀어 주었다. 그리고 처녀에게, 부엌에 가서 가능한 한 빨리 서둘러 그를 위한 저녁식사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그 낯선 남자는 답했다. 저는 프랑스군의 장교지만, 당신도 판단하시듯이 프랑스인은 아닙니다. 저의 조국은 스위스이고, 이름은 구스타프 폰 데어 리드입니다. 아, 제가 제 조국을 떠나지 말고 이 불행한 나라에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당신들이 아시듯이, 모든 백인들이 살해된 포르 도팽에서 왔으며, 데살린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포르 토 프랭스를 에워싸고 포위하기 전에, 거기에 도착하려 합니다. — "포르 도팽에서!" 노파는 외쳤다. "당신의 흰 얼굴 색으로 폭동에 사로잡힌 흑인 국의 이 끔찍한 길을 용케도 잘 통과하여 왔군요?" 하느님과 모든 성자들이,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 낯선 남자가 대답했다. —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착한 아주머니, 제가 뒤에 남겨두고 온 저의 일행에는 늙은 큰아버지와 그의 아내 및 다섯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딸린 몇몇 하인, 하녀들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두 명이나 되는 일행을 두 마리 노새의 도움으로, 말할 수 없이 힘든 야간 이동을 하며, 이끌고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에 큰길에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구, 맙소사!" 노

파가 대답했다. 그녀는 동정적으로 머리를 흔들면서, 한줌의 잎담배를 쥐었다. "지금 당신의 일행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 당신에게는…… 그 낯선 남자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당신에게 저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 색깔에는 우리 백인의 피도 섞여 있으니까요. 가족들은 당신이 아시듯이, 여기서 1마일 떨어진 갈매기 못 근처, 언덕으로 둘러싸인 깊은 숲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엊그제 이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우리들은 지난밤에 지역 주민에게서 약간의 빵과 포도주를 마련하라고 우리들의 하인들을 내보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붙잡혀 살해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 때문에 결정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직접 오늘 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행운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틀림없이…… 그는 노파의 손을 힘주어 잡으면서, 계속 말을 이었다. 하느님이 저를, 이 섬의 모든 주민들을 사로잡은 저 끔찍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싸움에 동참하지 않는 동정심 많은 사람들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에게 음식과 청량음료를 바구니에 넣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충분한 대가를 드리겠어요. 저희들은 닷새만 더 가면 포르 토 프랭스까지 가는데 만약 당신이 그 곳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저희들은 당신을 영원히 우리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겠습니다. — "그래요, 이 광란의 싸움", 노파가 그럴 듯하게 꾸며서 말했다. "그것은 한 몸의 두 손들이, 또는 한 입안의 이(齒)들이 서로 한 부위가 다른 부위와 똑같이 창조되지 않았다고 서로 화를 내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예컨대, 쿠바 섬의 산티아고 출신인 사람을 아버지로 하여 태어난 내가 낮이 되면 내 얼굴에 희미한 빛이 떠오르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유럽에서 임신하여 낳은 내 딸의 얼굴에서 저 대륙의 밝은 빛이 반사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뭐라고요? 낯선 남자가 외쳤다. 당신은, 얼굴의 생김새로 보아 흑백 혼혈녀(Mulattin)이며, 따라서 아프리카 태생인 당신이 저에게 집의 문을 열어주었던 사랑스런 젊은 혼혈아(Mestize)인 딸과 함께, 우리 유럽인들처럼 박해받고 있단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노파

는 코에서 안경을 벗으면서 대답했다. "당신은 몇 해 동안 우리가 힘들여 고통스럽게 우리 손으로 일해 번 작은 재산이, 지옥에서 나온 이 지독한 강도의 무리를 자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우리가 간계와 약자에게 주어진 저 정당방위의 술책을 다하여 그들의 박해를 피하여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얼굴에 퍼져 있는 닮은 그림자는, 아마 당신도 확실히 믿을 것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 있을 수 없습니다! 낯선 남자가 외쳤다. 그런데 누가 이 섬에서 당신을 박해합니까? "이 집의 주인이지요." 노파가 대답했다, "흑인 콩고 호앙고! 이 농장의 전(前) 주인 기욤 씨가 폭동이 발생한 초기에 호앙고의 손에 잔인하게 쓰러져 죽은 이후, 우리들은 친척으로서 그의 살림살이를 맡아 주면서도 그의 학대와 폭력에 내맡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적인 견지에서 때때로 이곳 길을 지나가는 한두 명의 백인 난민들에게 빵 한 조각, 청량음료 한 모금이라도 주기만 하면, 그는 우리에게 욕설을 하며, 학대를 하고 책임을 묻지요. 그리고 때로는 그의 백인에 대한 폭행을 비난하는 우리 모두를 제거하기 위해, 또 때로는 우리들이 남기게 될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 백인과 그가 늘 개라고 부르는 흑백 혼혈인에 대한 흑인의 복수를 부추기는 것 이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어요." — 당신들은 불행한 사람들이군요! 그 낯선 남자는 말했다. 가련한 사람들! — 그런데 지금 그 폭군은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린 장군의 군대에" 라고 노파가 대답했다, "그는 이 농장에 소속된 다른 흑인들을 데리고 장군이 필요로 하는 탄약을 수송해 주기 위해 나갔습니다. 우리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새로운 작전에 나가지 않으면, 10일 내지 12일 안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가 온 힘을 다해 모든 백인을 이 섬에서 박멸하려는 그 원정에 참가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포르 토 프랭스로 가는 한 백인에게 피난처와 잠자리를 제공했다는 것을 그가 알 경우에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게 될 겁니다." 그 낯선 남자는 대답했다. 인정과 자비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

은, 그는 노파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말을 이었다. 이번에, 일단 그 흑인의 분노를 살만한 일을 한 이상, 설사 당신이 다시 복종하겠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보수를 드릴 테니 피난길에 가장 극도로 쇠약해져 있는 제 큰아버지와 그의 가족을 하루나 이틀 당신의 집에 묵게 하여 그들이 조금이나마 기운을 얻도록 해 주겠습니까? — "젊은이여!" 노파는 당황하여 말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세요? 길가에 놓여 있는 이 집에, 그렇게 많은 당신의 가족을 지방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고 숙박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왜 못합니까? 그 낯선 남자는 다그쳤다. 만약 제가 즉시 직접 갈매기 못으로 가서, 날이 새기 전에 일행을 이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주인과 하인들이 모두 이 집의 같은 한 방에 묵게 하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문들과 창문들을 조심스럽게 잠그는 그런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안됩니까? — 그 노파는 이 제안을 한동안 숙고한 후, "만약 오늘밤에 그 일행들을 산골짜기에서 이 집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그런 시도를 한다면, 그곳에서 돌아올 때, 틀림없이 몇몇 선발대로부터 큰길을 따라 진격해 갈 것을 연락 받은 무장한 흑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 좋습니다! 낯선 남자가 대답했고,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불행한 자들에게 음식물을 한 바구니 보내고 그들을 이 집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내일 밤으로 연기해 둡시다. 착한 아주머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좋습니다" 노파는 뼈가 앙상한 자신의 손에 낯선 남자의 입술이 퍼붓는 키스를 여러 번 받으면서 말했다. "내 딸의 아버지인 유럽인을 위해, 나는 곤궁에 처한 그의 동향인에게 이 호의를 보여 주겠어요. 내일 날이 새면 책상에 앉아, 당신 가족에게 편지를 써서 이 집으로 오도록 초대하세요. 마당에서 본 소년이 아마 그들에게 편지와 몇몇 식료품을 함께 가지고 갈 것이며, 그들의 안전을 위해 그들과 함께 산에서 밤을 지내고 다음날 날이 샐 무렵에, 만약 그 초대가 받아들여지면, 그가 이쪽으로 오는 길에 그 일행을 안내해 올 것입니다."

그 사이에 토니는 부엌에서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돌아와 식탁에 놓

으면서 그 낯선 남자를 힐끗 쳐다보며 농담조로 어머니에게 물었다. 자, 어머니, 말씀하세요. 문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그분은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까? 그는 독약도 칼도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음을, 그리고 흑인 호앙고가 집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얘야, 속담에도 불에 덴 어린이는 불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있다. 이 양반이 이 집에 사는 주민이 어느 종족에 속해 있는지 확실히 알아보기도 전에 집안으로 들어왔다면, 어리석은 행동을 범했을 것이다." 그 처녀는 어머니 앞에 다가서며, 어머니에게 등불의 불빛이 모두 얼굴에 내리비치도록 어떻게 등불을 잡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러나 그는 무어인과 흑인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파리의 여인이나 마르세이유의 여인이 문을 열어 주었더라도, 그는 그녀를 흑인 여자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그 낯선 남자는 그녀의 몸에 팔을 부드럽게 대면서, 당황한 어조로, 그녀가 쓰고 있던 모자 때문에 그녀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고 말하고는 그녀를 힘껏 가슴에 껴안으면서 말을 이었다. "내가 당신의 눈을 지금처럼 볼 수 있었다면, 나는 당신 신체의 나머지 모두가 검은 것이었어도 당신과 함께 독이 든 잔을 마시려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말을 하면서 얼굴이 붉어진 그를 강제로 자리에 앉혔다. 한편 토니는 그 낯선 남자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 그 옆 식탁에 팔을 괴고 앉아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낯선 남자는 그녀에게 몇 살이며 고향은 어디냐고 물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을 받아 그에게 대답했다. "토니는 열 다섯 해 전, 내가 나의 전 주인 비뇌브 씨의 부인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할 때, 파리에서 임신하여 낳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 뒤 나와 결혼한 흑인 코마르가 토니를 양녀로 맞이했지만, 토니의 진짜 아버지는 베르트란트라는 부유한 마르세이유 상인이므로 그녀의 정식 이름은 토니 베르트란트입니다." — 토니는 그에게 프랑스에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알았던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 낯선 남자는 아니오! 그 나라는 너무 커서, 그가 서인도로 가는 배를 탈 때까지 잠시 체재한 것만으로써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만

날 수 없었습니다 고 대답했다. 노파는 자신이 입수한 상당히 확실한 소식에 의하면 베르트란트는 프랑스에 없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명예와 출세욕이 강한 그의 기질은, 시민적 활동의 영역에서는 만족을 찾지 못했어요. 그는 혁명이 발발하자, 공적인 사업에 가담하여, 1795년 프랑스 공사와 함께 터키 궁전으로 갔으며, 거기서 그는, 내가 아는 한, 이 순간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낯선 남자는 토니의 손을 잡고 미소지으면서 일이 그렇다면 그녀는 고상하며, 부유한 처녀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장점을 이용해 보라고 그녀를 격려했고, 그녀가 언젠가 아버지의 도움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 들어가 살게 된다는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렵습니다" 노파는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대답했다. "내가 파리에서 임신하고 있는 동안, 베르트란트 씨는 결혼하려고 하던 젊고 부유한 신부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나를 부인했고, 자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임을 법정에서 정식으로 부정했어요. 나는 그가 뻔뻔스럽게 내 얼굴에 대고 행한 그 위증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는 담즙열을 얻었고 그 후 곧 비뇌브가 내린 60대의 매를 맞고 그 결과로 나는 오늘날까지 폐결핵을 앓고 있어요." — 그때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한 손을 머리에 대고 있던 토니는 그 낯선 남자에게 대체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이 낯선 남자는 노파의 분노에 찬 이야기를 듣고 잠시 당황한 빛을 보이더니, 자기는 갈매기 못가의 숲에 두 사촌의 보호 하에 남겨 두고 온 큰아버지 스트룀리 씨의 가족과 함께 포르 도팽에서 왔다고 대답했다. 그는 처녀의 요청에 따라 이 도시에서 발발한 폭동의 여러 특징을 이야기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배반적인 신호에 따라 흑인들이 백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고, 프랑스 공병대의 중사였던 흑인 두목이 항구의 모든 선박에 불을 지르는 악행을 저질러 백인들이 유럽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했으나, 그의 가족들은 도시의 성 문 밖으로 몇몇 소유물을 가지고 빠져나갈 시간을 간신히 가져, 모든 해안지대에서 동시에 폭동의 불길이 있을 때, 가족들은 그들이 조달한 두 마리의 노새를 이용해 이 섬을 횡단하여 지금도 여전히 그 세가 불어

나고 있는 흑인에게 저항하는 프랑스 군대에 의해 보호되는 유일한 장소인 포르 토 프랭스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 토니는 물었다. 왜 그곳의 백인들은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까? — 그 낯선 남자는 당황해하며 대답했다. 그들이 섬의 주인으로서, 흑인에 대해서 가졌던 일반적인 관계 때문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도 감히 그 관계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 백년 전부터 이런 방법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농장을 엄습한 자유의 광기가 흑인과 흑백 혼혈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압박하던 쇠사슬을 부수게 했고, 또 몇몇 나쁜 백인에게서 당했던 다양하고 비난할 만한 학대에 대해 백인에게 복수하게 했습니다. …… 특히.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어느 젊은 처녀의 행위가 나에게는 끔찍하고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흑인 혈통인 이 처녀는 폭동이 불타오르고 있을 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도시에 만연한 황열병을 앓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3년 전에 한 백인 농장 소유자의 노예였지요. 그 백인은 자신의 뜻에 고분고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감정적으로 학대했으며, 그 후 어느 백인 2세인 농장주인에게 그녀를 팔았습니다. 그 처녀는 온 사방에서 폭동이 있던 어느 날 자신의 이전 농장 주인이 미친 듯이 뒤쫓고 있던 흑인들을 피하기 위해 가까이 있던 목재 창고로 숨어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에게 가했던 그의 학대를 기억하고 해질 녘에 자신의 오빠를 그에게 보내 자기 곁에서 밤을 지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불행한 자는, 그 처녀가 몸이 편치 않고 또 그녀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모르고, 그녀의 방으로 와서, 자신은 구원되었다고 믿으며,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그녀를 팔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녀의 침대에서 반 시간 가량의 애무와 사랑을 나누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광포하고 냉정하게 화난 표정으로 몸을 일으켜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슴에 죽음을 지니고 있는 페스트 환자에게 키스했어요. 어서 가서 이 황열을 당신의 동료들에게 옮기시오! — 이 말에 대해 노파가 큰 소리로 자신의 혐오를 표현하고 있는 동안, 장교는 토니에게 그녀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니오! 하며 토니는 당황하여 눈길을 아래로 떨구면서 말했다. 낯선 남자는 식탁 위에 냅킨을 깔면서 자신의 신념으로는 백인에 의해 저질러진 전제정치는 그와 같은 비열하고 혐오스런 배반을 정당화시킬 만한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는 흥분의 기색을 나타내면서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하늘의 복수도 그와 같은 백인의 행위에는 없을 것입니다. 천사들도 그것에 분개하여, 도리어 옳지 못한 백인의 편에 서서, 인간적이고 신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잠시 창가로 가서, 밤의 어둠을 내다보았는데, 그 때 폭풍의 구름이 달을 가리며 별을 넘어가고 있었다. 이때 그는 어머니와 딸이 서로 눈짓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서로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므로, 거슬리고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는 몸을 돌려 자신이 잘 방을 안내해 달라고 청했다.

어머니는 벽시계를 쳐다보고 자정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알고 등불을 들면서 그 낯선 남자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그녀는 그를 긴 통로를 지나 그를 위해 정해 놓은 방으로 데려갔다. 토니는 낯선 남자의 외투와 그가 벗어 놓은 다른 몇몇 물건을 들고 갔다. 어머니는 그가 잠을 자게 될 솜털을 넣은 안락한 침대를 보여 주며, 토니에게 그 신사를 위해 발 씻을 물을 준비하라고 말한 후, 그에게 잘 자라고 인사를 한 후 물러났다. 그 낯선 남자는 칼을 구석에 세워두고, 허리띠에 차고 있던 한 쌍의 권총을 탁자 위에 놓았다. 토니가 침대를 앞으로 밀어 그 위에 흰 시트를 깔고 있는 동안에 그는 방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는 곧 그 방안에 감도는 화려함과 장식을 보고서 이 방이 이전 농장주인의 방임이 틀림없다고 추측했다. 그래서 그는 독수리가 심장 주변을 날고 있는 듯한 불안감에, 도착할 때 그랬던 것처럼 배고프고 목이 마르더라도, 다시 가족들이 있는 숲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그 사이에 처녀는 가까이 있는 부엌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따뜻한 물 한 통을 떠 왔다. 그리고는 창문 가에 기대 있던 장교에게 그 물로 발을 씻으라고 말했다. 그 장교는, 아무 말 없이 넥타이와 조끼를 벗어 놓고는, 의자에 앉아서

신발과 양말을 벗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녀가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앉아, 발을 씻기려고 준비하는 동안, 그는 그녀의 매혹적인 모습을 쳐다보았다. 검은 곱슬로 부풀어올라 있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녀가 무릎을 꿇자, 가슴에 축 늘어졌다. 그녀의 입술과 아래로 뜬 눈 앞으로 나온 긴 눈썹에서 매우 우아한 모습이 감돌았다. 그는 자신에게 조금 불쾌한 감정을 주는 피부색을 제외하고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보지 못했다고 맹세할 뻔했다. 그 때 그에게는 아직도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와 희미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집에 들어 올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할수록 그의 온 마음은 그녀에게 매혹되었다. 그녀가 일을 끝내고 갑자기 일어났을 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처녀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무릎 위에 앉히고 물었다. "당신은 약혼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처녀는 큰 검은 두 눈을 부끄러워하며 살짝 밑으로 내리뜨면서 속삭였다. 그녀는 그의 무릎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웃 지방의 젊은 흑인 코넬리가 비록 석 달 전에 자신에게 청혼을 했지만 자기가 너무 어려서 그를 거절했다고 말을 덧붙였다. 그 낯선 남자는 두 손으로 그녀의 날씬한 몸을 껴안고 말했다. "내 조국에서 통하는 속담에 따르면, 한 처녀가 열 네 살하고 7주가 되면 충분히 결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의 목에 달고 있는 작은 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몇 살입니까?" — 열다섯 살입니다. 토니가 대답했다. — "그런데 왜 거절했습니까?" 그 낯선 남자가 말했다. "그에겐 당신이 원하는 만큼 살림을 차릴 만한 재산이 없습니까?" 토니는 그에게 눈길을 보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십자가를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코넬리는 최근에 발생한 사건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농장 소유자인 자기 주인이 갖고 있던 모든 농장이 그의 아버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 "그럼 왜 당신은 그 청혼을 거절했습니까?" 낯선 남자가 물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이마에 있는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그

가 당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까?" 그 처녀는 고개를 짧게 흔들더니 웃었다. 그 낯선 남자는 농담 삼아 그녀의 귀에 대고, 당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인이어야만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 질문을 받자 그녀는 잠시 꿈을 꾸는 듯이 생각에 잠긴 후에, 검게 탄 얼굴을 아주 매력적으로 붉히며, 갑자기 그의 가슴에 안겼다. 그 낯선 남자는 그녀의 우아함과 사랑스러움에 이끌려 그녀를 애인이라고 부르고, 신의 손길이 모든 걱정을 쓸어간 듯한 감정으로, 그녀를 팔에 안았다. 그는, 그녀가 보여준 이 모든 동작이 비열한 배반의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를 불안케 하던 생각이 무서운 새떼처럼 사라졌다. 그는 잠시 그녀의 마음을 의심한 자신을 꾸짖었다. 그는 그녀를 자기 무릎 위에 올려 살살 흔들면서 그녀가 내뿜는 달콤한 숨을 들이마시다가, 화해와 용서의 표시로 그녀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그 사이에 처녀는 마치 누군가가 통로에서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 듯이 갑자기 귀를 기울이더니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꿈같은 생각에 잠기며 헝클어진 가슴 앞 옷자락을 다듬었다. 자신이 착각한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경쾌한 표정으로 다시 그 낯선 남자에게로 방향을 돌려, 그가 그 물을 빨리 사용하지 않으면 식어버릴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 그런데? 그녀는 당황하여 말했고, 그 때 그 낯선 남자는 그녀를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쳐다보았다. 당신은 저를 왜 그렇게 이상스럽게 쳐다봅니까? 그녀는 가슴 솔기를 만지작거리면서 당황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미소지으며 외쳤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군요, 저를 보시고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손으로 이마를 어루만지고 있던 낯선 남자는 한숨을 억누르고서 그녀를 무릎에서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 여자 친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군요!"— 그의 명랑함이 사라짐을 분명히 느낀 토니는 다정하게 동정적으로 그의 손을 잡으면서 물었다. 누구와 닮았다고요?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안네 콩그레브이고, 고향은 슈트라스부르크입니다. 나는 그녀를 그녀의 아버지가 장사를 하던 그 도시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알았으며, 참 다행스럽게도 그녀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았고 또

잠정적으로 그녀의 어머니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아!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인정 많은 사람이었죠. 지금 당신을 보니 그녀를 잃어버린 끔찍하고 놀라운 상황이 떠올라서 슬픔의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토니가 다정하게 그에게 몸을 기대면서 말했다. 그녀는 살아 있지 않습니까? — "그녀는 죽었어요" 그 낯선 남자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가 매우 자비롭고 멋진 여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이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면서 말을 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경솔했는지 내 자신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공개된 장소에서 바로 그 당시 설치된 무서운 혁명재판소에 대해 심한 비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고소했고 붙잡기 위해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교외에 피신함으로써 나를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없자 나를 추격하는 광란한 추격자들은, 한 희생자를 만들어야만 했기에, 내 약혼자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그녀의 진실한 확언을 듣자, 화가 난 그들은 그녀와 내가 공모하고 있다는 핑계를 내세워, 나 대신에 그녀를 형장으로 아주 난폭하게 끌고 갔습니다. 나는 이 끔찍한 소식을 접하자마자, 즉시 내가 숨었던 은신처에서 나와, 군중들을 헤치면서 형장으로 급히 달려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잔인한 놈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러나 이미 단두대 위에 서 있던 그녀는, 불행하게도 나를 모르던 몇몇 재판관들의 질문을 받고, 나에게서 눈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 눈길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 그러자 사람들이 북을 치고 소란을 피우는 가운데, 잠시 후 성급하고 잔인한 사람에 의해 계획된 칼이 내려지고 그녀의 머리가 몸에서 잘려나갔습니다. — 나는 내가 어떻게 구원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15분 뒤, 한 친구의 아파트에 있었고, 거기서 몇 차례 기절했다가 깨어나기를 거듭했습니다. 저녁 무렵에 반미치광이가 된 나는 마차에 실려 라인강 너머로 보내졌습니다." — 이렇게 이야기한 낯선 남자는 처녀에게서 몸을 떼고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는, 그가 북받쳐 오른 감정

을 감추기 위해 손수건에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점에서 감동되어 불쌍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그를 뒤따라가 그의 목에 매달리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기까지 읽은 독자가 스스로 추측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정신을 차린 그 낯선 남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당분간 자신이 구원되었고, 그것도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집에서는 그 처녀를 조금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음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침대에서 팔짱을 끼고 울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는 죽은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안네가 선물로 준 작은 금 십자가를 가슴에서 벗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애무하면서 몸을 굽혀, 그것을 약혼선물이라고 하면서 그녀의 목에 걸어 주었다. 그녀가 눈물을 끝없이 흘리면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그는 침대 가에 앉아 그녀의 손을 어루만지며 입맞추고는 내일 아침 그녀의 어머니에게 청혼을 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많지 않은 재산을 아르(Aar)강변에 소유하고 있고,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까지, 만약 어머니의 나이에도 여행할 수만 있으면, 모두 맞아들일 수 있는 안락하고 넓은 집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장과 정원, 그리고 초원과 포도밭도 있고, 그리고 늙고 위엄 있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는 그녀가 아들을 구해 주었기 때문에, 그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친절히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눈물이 끊임없이 침대 커버에 흘러내리자, 그는 그녀를 팔로 껴안고, 스스로 애절한 마음이 들어 자기가 그녀에게 무슨 괴로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자기를 용서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에 대한 사랑은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고, 또 그저 놀라운 혼란스런 감각의 도취 속에서 그녀가 자신에게 불어넣은 욕망과 불안의 혼합 속에서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침내 그녀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며, 샛별이 빛을 빤짝이고 있으니, 더 이상 침대에서 꾸물거리고

있으면, 어머니가 오셔서 생각하지도 않은 소동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어나 그녀의 방에 가서 몇 시간 더 푹 쉬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녀의 상태를 매우 걱정하면서 그녀를 팔에 안고 일으켜 세워 그녀의 방으로 데려가도 되는지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제안한 것에 대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두 팔 사이에 얼굴을 묻고 움직이지 않은 채, 헝클어진 베개 위에 누워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마침내 두 창문으로 대낮처럼 밝은 빛이 비춰 들어왔으므로, 그는 더 이상 상의하지 않고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마치 생명력이 없는 것을 어깨에서 축 늘어뜨린 것처럼, 그녀를 메고 계단을 따라 그녀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녀를 침대에 내려놓은 후, 여러 번 애무를 하며 그녀에게 했던 말을 전부 반복했으며, 그녀를 다시 한 번 사랑스런 신부라고 불렀고, 그녀의 두 뺨에 키스를 한 다음, 급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완전히 날이 새자, 늙은 바베칸은 2층의 딸에게로 올라갔으며, 딸의 침대에 앉으면서, 그 낯선 남자와 그의 일행을 처치할 계획을 세웠다고 털어놓았다. 흑인 콩고 호앙고는 이틀 후에야 돌아올 것이므로, 그가 속해 있는 그의 가족은 수가 많아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집안에 들여놓지 말고, 그 낯선 남자만 이 집안에 그때까지 붙잡아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녀는 말했다. 이 목적을 위해, 그 낯선 남자에게 데살린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 지방에서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이제 막 도착한 소식이 있으니, 너무 위험하니까, 3일째 날에, 그가 지나가고 나면, 그의 소원대로 가족을 이 집에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럴 듯하게 꾸며 댈 것을 생각해냈다고 하면서 말을 끝맺었다. 그 일행에게 그 사이에 더 이상 여행하지 못하도록 음식을 공급하고, 또 그들을 후에 체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 집에서 도피처를 발견한다는 착각을 하며 집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가족들이 아마 상당한 소지품을 휴대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계획의 중요성을 알고, 딸에게 있는 힘을 다해 자기가 말한 이 계획을 지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토니는 침대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고, 화가 나 얼굴이 붉어지면서 대답했다. "집으로 유인한 사람의 손님으로 대접받을 신성한 권리를 그렇게 훼손하는 일은 수치스럽고 비열한 짓입니다. 쫓기고 있는 그 사람은 우리들의 보호를 믿고 있으므로 이 집에서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저에게 말한 잔인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는 즉시 그 낯선 남자에게 가서 그가 구원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집이 살인 소굴이라고 알리겠습니다." 토니!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리를 짚고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보면서 말했다. — "거짓말 아닙니다!" 토니는 목소리를 낮추면서 대답했다. "태생으로 봐서 결코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알았듯이, 스위스 사람인 이 젊은이가, 강도처럼 습격 당하고, 약탈 당하고 죽임을 당할 정도로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쳤습니까? 우리들이 이곳에서 농장 주인에게 퍼붓고 있는 불평들이 그가 떠나온 그 곳 섬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까? 오히려 모든 점에서 그는 매우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임을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종족이 흑인에게 가하는 나쁜 일에는 결코 참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 노파는 딸의 이상한 표정을 쳐다보다가, 떨리는 입술로 그저 놀랍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성문 앞길에서 얼마 전에 곤봉으로 때려죽인, 젊은 포르투갈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녀는 3 주전에 흑인들의 총에 뜰에서 사살된 두 네덜란드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녀는 3명의 프랑스인과 그렇게 많은 백인의 난민 모두에게 그 폭동이 일어난 이후로, 총과 창과 검으로 이 집에서 처형되는 짐을 왜 지웠는지 알고 싶었다. "정말입니다." 딸은 과격하게 일어서면서 대답했다, "어머니는 아주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상기시키다니! 부모님이 저를 비인간적인 일에 가담시키려고 강요하지만, 저는 내심으로 오래 전부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맹세합니다. 이 젊은이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게 하느니 차라리 저가 열 번이라도 죽어버리겠어요." — 좋다. 노파는

갑자기 양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그럼 그 놈을 떠나가게 해라! 그녀는 일어나 방에서 나가면서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콩고 호앙고가 돌아와, 한 백인이 우리 집에서 묵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엄한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동정하는 마음에서 그를 도망가게 해준 책임은 네가 져야 할 것이다.

이 말을 할 때 비록 외관상 부드러웠지만, 노파의 분노는 모르는 사이에 터져 나왔으며, 처녀는 적지 않게 당황하여 방안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노파가 백인에 대해 갖고 있는 증오가 너무 커서, 이번 기회를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노파가 즉시 이웃에 있는 농장에 사람을 보내 그 낯선 남자를 제압하려고 흑인들을 데리고 올까봐 두려워, 토니는 옷을 걸쳐 입고, 지체없이 어머니를 뒤따라 아래층 거실로 갔다. 토니가 들어서자, 찬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 듯이 보이던 노파는 당황해 하며 거기서 물러나, 물레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토니는 '백인을 보호하는 흑인은 모두 사형'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문 앞에 가 섰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아는 듯 공포에 사로잡혀, 갑자기 몸을 돌려, 자신의 배후에서 보고 있는(그것을 토니도 잘 알았다) 어머니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무릎을 껴안고, 낯선 남자를 위해서 행동한 자신의 미친 듯한 말을 용서해 달라고 청했다. 그녀는 아직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비몽사몽간의 상태에서 어머니로부터 그를 속일 제안을 듣고, 놀랐다고 변명을 하며 그를 죽이기로 이미 결정하고 있는 이 지방의 법대로 그를 복수의 손에 완전히 맡기겠다고 말했다. 노파는 잠시 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본 후 말했다. "맹세코, 너의 이 설명이 단 하루 동안만 그 놈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그 놈을 보호하겠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음식에 이미 독약을 넣었다. 이 음식은 콩고 호앙고의 명령대로 그의 수중에 적어도 그 놈을 죽은 시체로 넘겨주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일어서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한 잔의 우유를 창 밖으로 쏟아버렸다. 토니는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하면서, 깜짝 놀라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았다. 노파는 다시 앉

았고, 아직도 무릎을 꿇고 있는 처녀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면서 물었다. "도대체 왜 지난 밤 동안에 너의 생각이 그렇게 변했니? 어제 그에게 목욕물을 준비한 후 그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 낯선 남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가?" 그러나 토니는 가슴을 심하게 두근거리면서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더구나 어떤 확실한 것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길을 바닥으로 떨구고, 손으로 머리를 짚고 서서 꿈을 꾸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불쌍한 어머니의 가슴을 한 번 쳐다보면서 급히 몸을 굽혀 어머니의 손에 입맞춤하면서, 이 낯선 남자가 속해 있는 인종의 온갖 비인간성이 다시 생각난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돌려, 얼굴을 앞치마에 갖다대면서 곧 흑인 호앙고가 도착할 것이고, 어머니께서는 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바베칸은 아직도 생각에 잠겨, 어디서 그런 이상한 열정이 딸에게 생겼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낯선 남자가 가족에게 며칠간 흑인 호앙고의 농장에서 지내자고 권하는, 침실에서 작성한 종이 쪽지를 가지고 방안으로 들어 왔다. 그는 어머니와 딸에게 매우 명랑하게 친절히 인사를 했고, 노파에게 그 쪽지를 넘겨주면서 즉시 숲으로 사람을 보내 그 일행을, 약속한 대로 돌봐 달라고 요청했다. 바베칸은 일어서서 불안한 표정으로 그 쪽지를 벽장에 놓으면서 말했다. "여보세요, 우리는 당신이 즉시 당신의 침실로 돌아갈 것을 부탁합니다. 길거리는 흑인 군인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은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데살린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 지방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집은 누구라도 자유로이 들어올 수 있으니, 만약 당신이 당신 침실에 숨어 마당을 내다볼 수 있는 문들과 창문들을 모두 단단히 잠그지 않으면 당신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 뭐라고요? 데살린 장군이…… 그 낯선 남자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 "묻지 마세요!" 노파는 지팡이로 바닥을 세 번 쳐 그의 말을 막았다. "내가 당신의 침실로 따라가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겠어요." 그 낯선 남자는 불안한 듯이 행동하는 노파에 의해 방에서 쫓겨나며, 문지방에서 다시 한 번 돌아보며 외쳤다. 그러나

저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최소한 사자(使者)를 보내 그들을……?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노파가 그 낯선 남자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 사이에 그녀의 지팡이 소리를 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생아인 소년 낭키가 들어왔다. 노파는, 낯선 남자에게 등을 돌리고 거울 앞에 서 있던 토니에게 방 한쪽 구석에 놓여 있는 식료품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오라고 명령하고 어머니, 딸, 그 낯선 남자, 소년은 이 층의 침실로 올라갔다.

여기서 노파는 안락의자에 편안하게 앉으면서, 지난 밤 내내, 지평선을 가르는 산 위로 데살린 장군이 올리는 불빛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사실은 지금까지 서남쪽 포르 토 프랭스를 향해 진출한 데살린 장군의 부하 흑인들 중 단 한 사람도 이 지역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노파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낯선 남자를 불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으며, 이어서 최악의 경우가 닥쳐 흑인 군대가 이 집에 머물지라도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그를 구해 주겠다는 굳은 약속으로 그를 안정시킬 줄도 알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한 식료품이나마 가족들에게 보내줘야 한다고 그 남자가 거듭 간절히 재촉하는 바람에, 노파는 딸의 손에서 바구니를 빼앗아, 그것을 소년에게 주면서 갈매기 못 근처의 숲 속으로 가서, 바로 거기 있는 낯선 장교의 가족에게 그것을 넘겨주라고 했다. 또한 덧붙여서 "그 장교는 잘 있다"고 전하라고 말했다. 백인을 편들었다고 해서 흑인들로부터 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던 백인의 친구들이 그 장교를 동정하여 그들의 집에 받아 주었다고 말해라. 끝으로 그녀는, 이리로 올 예정인 무장한 흑인 군대가 이 길을 지나가고 난 후, 즉시 그 가족들이 이 집에 묵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라고 했다. — 너 잘 알아들었지? 라고 그녀가 물으며 말을 끝냈다. 소년은 바구니를 머리 위에 얹으며 방금 말한 갈매기 못은, 거기로 종종 친구들과 낚시를 하러 가곤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며 자신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그 못 근처에서 묵고 있는 낯선 남자의 가족에게 전해 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밖에 더 전할 말이 있느냐고 노파가 묻자, 그 낯선 남자는 손가

락에서 반지를 뽑아 소년에게 건네주며, 이것을 그가 전하는 소식이 사실이라는 증거로 가족의 대장인 스트륌리 씨에게 넘겨주라고 했다. 그 후 어머니는 그 낯선 남자의 안전을 위해 자기가 말한 대로 의도적인 몇몇 조치를 취했다. 우선 토니에게 덧문을 닫으라고 명령했고, 자신은 어두워진 방을 밝히기 위해, 벽난로 선반 위에 있던 성냥으로, 심지에 불이 쉽게 붙지 않아 매우 힘들어하며 불을 켰다. 그 낯선 남자는 이 때를 이용하여, 부드럽게 토니의 몸에 팔을 얹으며, 그녀의 귀에 대고 잘 잤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께 알려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속삭였다. 그러나 토니는 첫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 그의 팔에서 몸을 빼면서 아니오, 만약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가 이 남자를 속이기 위해 꾸미는 준비를 보고 토니는 마음속에 불안을 느꼈으나 이를 꾹 참고, 그 낯선 남자의 아침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를 내세워, 급히 아래층 거실로 내려갔다.

토니는 어머니의 장롱에서 편지를 꺼냈다. 그것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는 그 남자가 가족들에게 이 소년의 안내를 받아 이 집으로 오라고 초대하는 내용의 편지였다. 그 편지가 없어진 것을 어머니가 알게 될는지의 문제는 운에 맡기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 남자와 함께 죽을 각오로, 그녀는 이 편지를 들고, 이미 길거리로 나가는 소년의 뒤를 따라갔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젊은이를, 하느님과 양심 앞에서, 자신이 그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보호해 주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약혼자며 동시에 남편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가족이 이 집에 도착해서 그를 지원하는 사람이 충분해지면, 어머니가 깜짝 놀라게 될 것을 각오하고,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숨을 헐떡거리며 그 소년을 열심히 쫓아가서 큰길에서 따라잡고 말했다. "낭키, 어머니가 스트륌리 씨의 가족에 관련된 계획을 바꾸었어. 이 편지를 받아라! 이것은 그 가족의 우두머리인 스트륌리 씨에게 보내는 것인데, 며칠 간 그에게 딸린 모든 가족을 데리고 우리의 농장에 머물 것을 초청

하는 내용이야. — 현명하게 이 계획이 실행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라. 만약 흑인 호앙고가 돌아오면,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 좋아, 좋아! 토니 누나, 소년이 대답했다. 그는 그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호주머니에 넣으며 물었다. 내가 그 일행을 이리 오도록 안내할까? "물론이지" 토니가 답했다. "그들이 이 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해. 그러나 흑인 군대가 국도를 따라 행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는 자정 전에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그러나 날이 새기 전에 네가 여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서둘러라. — 우리가 너를 믿어도 될까?" 라고 그녀가 물었다. 낭키를 믿으세요! 소년이 대답했다. 나는 누나가 왜 이 백인 난민들을 이 농장에 꾀어 넣는지 알아, 그리고 나는 틀림없이 흑인 호앙고로부터 칭찬 받을 거야!

집에 돌아온 토니는 그 낯선 남자에게 아침밥을 갖다주고 그 후 그것을 치우고 난 뒤, 딸과 어머니는 자기들의 집안일 때문에 앞 쪽 거실로 돌아갔다. 잠시 후 어머니가 장롱으로 갔고, 당연하게도 그 편지가 분실된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기억을 의심하면서, 손을 잠시 머리에 얹고는 토니에게 그 낯선 남자가 자신에게 준 그 편지를 어디에 두었는지 물었다. 토니는 잠시 사이를 두고 시선을 땅바닥에 내리깔면서, 자신이 알기로는 그 낯선 남자가 그 편지를 다시 꽂아 넣었고, 방으로 올라가, 그것을 그들 두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찢었다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처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 편지를 그의 손에서 받아 장롱 속에 넣어 둔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안에서 여러 번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고,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여 결국 그녀는 딸이 말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사건에 대한 심한 불만을 감출 수 없었으며, 그 편지는 그 가족을 이 농장에 불러들이기 위해 흑인 호앙고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지적했다. 점심때와 저녁때는, 토니가 낯선 남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어머니는 그와 대화하기 위해 식탁 모서리에 앉아 여러 번 기회를 잡아서, 그에게 편지에 대

해 물었다. 그러나 토니는 그 대화가 위험한 순간에 이르면, 매우 능숙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얼버무려 버렸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낯선 남자의 설명을 듣고도 이 편지의 진짜 행방에 대해서는 도무지 분명한 것을 알 수 없었다. 그렇게 그 날이 지나갔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라고 하면서 그 낯선 남자의 방문을 자물쇠로 잠갔다. 그리고 그녀는 토니와 함께 어떤 꾀로써 다음날 다시, 그런 편지를 소유할 수 있을까를 의논한 후, 그녀는 자러 갔고, 딸에게도 즉시 자러가라고 명령했다.

이 때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토니는 자신의 침실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잠이 꼬박 들었다는 것을 확신하고는, 침대 곁에 걸린 성모상을 걸상 위에 놓고, 두 손을 합장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구세주이며, 성모의 아들에게 무한한 열정의 기도를 올리며 자신이 몸을 맡긴 그 젊은이에게 자신의 젊은 가슴을 무겁게 하던 범죄를 고백할 용기와 굳은 마음을 달라고 간청했다. 그녀는 그에게 가슴이 아프더라도 아무 것도 숨기지 않고, 자기가 그를 어제 집으로 유인한 무자비하고 끔찍한 계획까지도 숨기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자신이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미 행한 조치를 생각해서 그가 자기를 용서해 주고 성실한 아내로 맞이하여 유럽으로 데리고 가 줄 것을 소원했다. 이 기도를 통해 놀라운 힘을 얻었던 그녀는 일어나, 집안의 모든 방들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손에 들고, 불빛도 없이 천천히 건물을 가르는 좁은 통로를 지나 낯선 남자의 침실로 갔다. 그녀는 그 방문을 조용히 열었으며,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의 침대 앞으로 나아갔다. 달빛이 생기에 찬 그의 얼굴을 비추었으며,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밤바람이 그의 이마 위로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했다. 그녀는 살며시 몸을 기울여 그의 달콤한 숨결을 들이마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깊은 꿈에 빠져 있었는데, 아마도 자신에 관해 꿈꾸는 것 같았다. 적어도 그녀는 그의 뜨겁고 떨리는 입술에서 몇 번인가 토니 하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그녀를 엄습했다. 그녀는 그를 아름다운 상상의 하

늘로부터 비천하고 고통에 찬 현실로 끌어내릴 결심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가 조만간에 스스로 깨어날 것이 틀림없다고 믿었으므로 그녀는 그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그의 손에 키스를 퍼부었다.

그러나 잠시 후 갑자기 마당 한가운데로부터 사람, 말, 무기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중에서도 예상치 않게 데살린 장군의 진영에서 그의 전 부대를 데리고 돌아온 흑인 콩고 호앙고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때 그녀의 가슴에 파고드는 놀라움을 과연 누가 묘사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비추려고 위협하던 달빛을 조심스럽게 피하여 창문 커튼 뒤로 몸을 숨기자, 벌써 어머니가 흑인 콩고 호앙고에게 그의 부재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을, 또 유럽의 난민이 집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는 것을 들었다. 그 흑인은 부하들에게 목소리를 낮추어 마당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노파에게 지금 그 낯선 남자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노파가 그에게 그 방을 가리켜 주었으며, 즉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딸과 함께 나누었던 그 난민에 관한 이상한 대화를 그에게 알렸다. 그녀는 그 흑인에게 딸이 배신자이고 그 남자를 붙잡으려는 모든 음모가 실패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소한 저 도둑년이, 땅거미가 질 때에 몰래 그 남자의 침대로 숨어들었고, 거기서 그년은 지금까지도 늘어지게 쉬고 있으며, 아마 그 낯선 남자가 아직도 도망하지 않았다면, 이제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어떻게 하면 잘 도망할지 의논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비슷한 경우에 딸의 성실성을 몇 번 시험해 본 적이 있는 흑인 콩고 호앙고는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 그는 노한 어조로, 켈리! 옴라! 총을 잡아라! 라고 외쳤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부하 흑인들을 모두 데리고 계단을 올라가, 그 낯선 남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 모든 조치가 눈앞에서 몇 분 사이에 연출되는 동안에, 토니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이 모든 사지가 마비되어, 거기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한 순간 그 낯선 남자를 깨울까도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마당이 점령되어 그가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무기를 손에 든다 해도 흑인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즉시 살해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녀는, 이 불행한 사람이, 이 순간 자신을 침대 옆에서 발견하면, 자신을 배반자로 간주할 것이며 자신의 충고는 듣지도 않고, 무서운 착각에 빠져 절망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흑인 호앙고에게 달려들게 될 것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말할 수 없는 불안의 순간, 정말 우연히 벽의 빗장에 걸려 있던 끈 하나가 그녀의 눈에 띄었다. 그녀는 그 끈을 끌어내리면서, 하느님이 직접 그 끈을 자신과 그 남자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 그 곳에 갖다 놓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것으로 그 젊은이의, 손과 발을 많은 매듭을 지어 가면서 묶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움직이고 저항할 수 있다는 것엔 아랑곳없이, 두 끝을 끌어 당겨, 침대 다리에 단단히 묶었다. 그녀는 이 위기를 잠시나마 넘기는 것에 기뻐서, 그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는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계단을 올라오는 흑인 호앙고에게로 달려갔다.

그 흑인은, 토니에 대한 노파의 보고를 항상 믿지 않았는데, 토니가 바로 그 손님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자, 당황하고 혼란에 빠져, 횃불과 무기를 든 부하들과 함께 복도에 멈춰 섰다. 그는 외쳤다. "부정한 계집! 배신자!" 그는 낯선 남자의 방문 쪽으로 몇 걸음 걸어나간 바베칸에게로 몸을 돌리면서 물었다. "그 낯선 남자는 도망갔느냐?" 바베칸은 안을 들여다보지도 아니하고 문이 열려져 있음을 발견하고는, 분노에 찬 얼굴로 돌아오면서 외쳤다. 도둑년! 저 년이 그 놈을 도망치게 했어! 서둘러서 그 놈이 넓은 들판에 도착하기 전에 출구를 막아요! "무슨 일이어요?" 토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그 늙은이와 그를 둘러 싼 흑인들을 둘러보았다. 무슨 일이냐고? 호앙고가 대답하면서 그녀의 가슴을 움켜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미쳤어요?" 토니는 눈앞에 전개된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는 그 늙은이를 뿌리치면서 외쳤다. "자, 보세요. 제가 그 남자를 침대에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맹세코, 이 일은 제 일생 동안 저지른 적이 없는 가장 나쁜 일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녀는 늙은이에게 등을 돌리고 우는 것처럼 하면서 탁자에 앉았다. 그 늙은이는 당황하

여 옆에 서 있는 어머니에게로 몸을 돌리더니 말했다. 아, 바베칸, 당신이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나를 속였지? "다행이군요." 어머니는 당황한 빛을 감추기 위해 낯선 남자를 묶고 있는 그 끈을 살펴보면서 대답했다.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낯선 남자는 여기 있군요." 흑인 콩고 호앙고는 칼을 칼집에 꽂으면서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 낯선 남자에게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그 낯선 남자는 묶인 데서 벗어나기 위해 발작적으로 경련하면서, 비탄스럽고 고통스럽게, 오 토니! 오 토니! 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 — 그러자 어머니가 말을 이으며, 그는 스위스 인이고, 이름은 구스타프 폰 데어 리드라고 그에게 알렸다. 그는 개 같은 유럽 백인들인 전 가족을 데리고, 해안지대 포르 도팽에서 왔으며, 그 가족들은 이 순간 갈매기 못 근처의 산 동굴에 숨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콩고 호앙고는, 우울하게 두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거기에 앉아 있는 딸을 보자,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사랑스런 딸이라고 부르며 그녀의 뺨을 톡톡 쳤고, 너무 성급하게 그녀를 의심하는 말을 했던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했다. 노파도 마찬가지로 딸 앞으로 나와, 옆구리를 짚고 머리를 가로 저으면서, 대체 너는 왜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그 낯선 남자를 침대에 끈으로 묶어 두었느냐고 물었다. 괴롭고 화가 난 토니는 실제로 울면서 갑자기 어머니를 향해 돌아서서 대답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눈치코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를 감싸고 있는 위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망치려고 하며 도와달라고 저에게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고, 만약 제가 잠자고 있는 그를 묶어 두지 않았더라면, 날이 새기 전에 틀림없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늙은이는 딸을 어루만져 주면서 안심시켰다. 그리고 바베칸에게 이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는 총을 든 소총수를 두서너 명 불러, 규정에 따라, 즉각 이 자를 처형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바베칸은 그에게 몰래 속삭였다. "안됩니다, 제발, 호앙고!" — 그녀는 그를 옆으로 데려가

서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 낯선 남자는, 처형되기 전에, 그의 가족들을 이 농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초대장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숲에서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 호앙고는 그 가족이 무장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 제안에 동의했다. 그는 약정한 방식대로 편지를 쓰게 하기에는 너무 늦었기에, 백인 난민 곁에 보초 두 사람을 세웠다. 그는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끈을 조사한 후, 그 끈이 너무 헐렁해서, 그것을 더 바짝 졸라매기 위해 몇몇 사람을 불러들였다. 그가 모든 부하를 데리고 방을 떠나자 곧 온 집안이 조용해졌다.

그러나 토니는 다시 한 번 더 손을 내밀던 그 노인에게 그저 겉으로만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하고 침대에 들었다. 집안이 모두 조용해지자마자 그녀는 다시 일어나, 집 뒷문을 통해 밖으로 몰래 빠져나갔으며, 가슴속에는 심한 절망감을 지닌 채, 국도를 가로지르는 길을 따라, 스트륌리 씨의 가족이 오기로 되어 있는 길로 달렸다. 왜냐하면 침대에 묶인 그 낯선 남자가 그녀에게 던지는 경멸에 가득한 눈길이 그녀에겐 마치 칼로 가슴을 찌르듯이 매우 아프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에 대한 그녀의 사랑에 씁쓸한 감정이 혼합되었고, 그녀는 그의 생명을 구하려는 이 시도로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는 생각만 해도 미칠 듯이 기뻤다. 그녀는 그 가족을 놓칠까 걱정이 되어, 그 초대장이 도착했을 경우 그 일행이 틀림없이 지나가게 될 소나무 밑에 섰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지평선을 밝히는 새벽빛이 비치자마자 그 일행의 안내자로 일하는 소년 낭키의 목소리가, 멀리 그 숲의 나무 아래에서 들려왔다.

그 일행은 스트륌리 씨와 한 마리의 노새를 타고 있는 그의 아내, 다섯 어린이들, 그 중 둘은 알베르트와 곳프리트로 열 여덟 살, 열 일곱 살이며 노새 옆에서 걸어왔고 세 명의 하인과 두 여종, 그 중 하나는 가슴에 젖먹이를 안고 있었고, 다른 여종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모두 합쳐서 열두 명으로 되어 있었다. 그 일행은 길 위로 얽혀 있는 소나무 뿌리를 지나 소나무 밑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거기서 토니는 아무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소리도 없이 나무 그늘에서 앞으로 나와 그 일행을 향해 소리쳤다. 멈춰요! 낭키는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스트룀리 씨가 어디 있어? 라는 그녀의 질문을 받고 남자, 여자, 어린이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동안에, 그는 그녀를 이 가족의 우두머리인 스트룀리 씨에게 반갑게 소개시켰다. "아저씨!" 하고 토니는 이 사람의 인사를 단호한 목소리로 가로막으며, "흑인 호앙고가, 뜻밖에도 부하들을 모두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생명을 내놓지 않고서는 그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안으로 입장이 허락된 당신들의 조카는, 흑인 호앙고에게 잡혀 구금되어 있으며, 그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당신들이 무기를 잡고 농장으로 저를 따라오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멸망합니다." — 큰일났다! 라고 그 가족들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여행에 지쳐 몸이 불편한 부인은 노새에서 땅 바닥으로 떨어져 기절해버렸다. 스트룀리 씨의 부름을 받고, 부인을 구하려고 서둘러 하녀들이 달려오는 동안 토니는 젊은이들로부터 질문 세례를 받았으며, 그녀는 스트룀리 씨와 다른 남자들을, 소년 낭키가 엿들을까봐 걱정하여, 옆으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후회의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그들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청년이 도착했을 때 집안의 사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 그녀가 그와 단둘이서 은밀하게 나눈 대화가 정말 불가사의하게도 상황을 돌변시켰던 일, 흑인 콩고 호앙고가 돌아왔을 때에 불안해서 거의 미칠 지경이 된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녀 자신이 그를 묶어 놓은 구금에서 다시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 생사를 걸겠다고 말했다. 내 총! 스트룀리 씨는 아내가 탄 노새로 달려가 총을 꺼내 잡았다. 그의 건장한 아들 알베르트와 곳프리트, 그리고 성실한 세 명의 하인이 무장하는 동안 그는 말했다. 사촌 구스타프는 우리의 생명을 여러 번 구했다. 이제는 우리가 그의 생명을 구해야 할 때이다. 그러면서 그는 원기를 되찾은 아내를 일으켜 노새 등에 태우고, 만일을 대비해서 소년 낭키를 일종의 인질로 삼아 손을 묶게 했다. 그리고는 여자들과 아이들 모두를 무장한 열세 살짜리 아들

인, 페르디난드의 보호를 받게 하여 갈매기 못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는, 투구를 쓰고 창을 든 토니에게 흑인들의 숫자와 뜰의 배치에 대해 충분히 묻고 나서, 호앙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도 가능한 한 이 작전에서 보호하겠다고 그녀에게 약속했다. 그는 하느님의 가호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용감하게 자신의 작은 무리의 선두에 서서, 토니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 집으로 출발했다.

그 일행이 뒷문을 통해 기어들어 가자마자, 토니는 스트룀리 씨에게 호앙고와 바베칸이 자고 있는 방을 가리켜 주었다. 그리고 스트룀리 씨가 부하들과 함께 살그머니 열려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흑인들이 걸어 놓은 모든 총을 점령하는 동안 그녀는 옆으로 살짝 빠져나가 낭키의 다섯 살짜리 이복 동생인 제피가 잠자고 있는 헛간으로 갔다. 낭키와 제피는, 늙은 호앙고의 사생아이며, 특히 제피는 어머니가 최근에 죽었기 때문에, 호앙고는 그를 매우 소중히 여겼다. 그런데 포로가 된 젊은이를 구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갈매기 못으로 돌아가, 거기서 그녀와 함께 포르도 프랭스 항구로 도망가는 데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일종의 인질로 두 어린이를 붙잡아 두는 것이, 몇몇 흑인의 추적을 받을 때 그 일행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올바른 결론을 맺었다. 그녀는 다행히 두 어린이를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침대에서 들어올려, 비몽사몽간에 있는 그들을 팔에 안고 본채로 데리고 왔다. 그 사이에 스트룀리 씨는, 일행을 데리고 될 수 있는 한 몰래 호앙고의 방문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와 바베칸은 침대에 있지 아니하고, 소음 때문에 잠이 깨어 그들 두 사람은 모두 반나체로, 무력하게 방 중앙에 서 있었다. 스트룀리 씨는 총을 손에 잡으면서 항복해라! 아니하면 죽인다! 고 외쳤다. 그러나 호앙고는 아무 대답도 않고 벽에서 권총을 뽑아 그들을 향해 발사했으나, 총알은 스트룀리 씨의 머리를 스치고 사람들 사이로 날아갔다. 스트룀리 씨의 일행들은, 이 신호에 따라, 미친 듯이 그를 덮쳤다. 호앙고는 두 번째 사격을 가해 한 하인의 어깨를 관통시키고 난 후, 자신도 칼에 찔려 손에 부상을 입었다. 그

리고 바베칸과 그는 땅바닥에 넘어졌고, 큰 탁자의 받침대에 끈으로 단단히 묶였다. 그 사이에 이 총성을 듣고 잠을 깬 스무 명 이상 되는 호앙고의 부하 흑인들이 그들의 오두막에서 달려나와, 늙은 바베칸이 집안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그들의 무기를 다시 빼앗기 위해 그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상처가 별로 중하지 않던 스트룀리 씨는 그 악한들을 제압하려고 부하들을 집 창문 가에 배치시켜 총을 쏘게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들은 이미 마당에 나동그라진 죽은 두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도끼와 쇠스랑을 가져와 스트룀리 씨가 빗장을 걸어 잠근 대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다. 바로 이 때 토니는 벌벌 떨면서 소년 제피를 팔에 안고 호앙고의 방으로 들어왔다. 스트룀리 씨는 그녀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그녀의 팔에서 그 아이를 잡아 당겼다. 그는 엽도를 뽑으면서 호앙고를 향해 들고, 만약 그가 그 흑인들에게 그들의 공격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이 아이를 즉시 죽여버리겠다고 선언했다. 세 손가락을 칼에 베어 힘을 잃은 호앙고는 만약 이를 거부하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잠시 생각한 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며 몸을 바닥에서 일으켜 달라고 했다. 그는 스트룀리 씨에게 이끌려 창문가로 가서, 왼 손에 잡고 있던 손수건을 마당을 내다보고 흔들면서, 흑인들을 향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조도 필요치 않으니, 문에 손대지 말고 오두막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그 후 싸움은 약간 진정되었다. 호앙고는 스트룀리 씨의 요구에 따라, 집안에 갇혀 있던 흑인 하나를 이 명령을 다시 반복하도록, 아직도 마당에 머물며 서로 수군거리고 있는 무리들에게로 보냈다. 그리고 흑인들은 이 사태의 진전을 잘 알지 못했으므로, 공식적인 이 사절의 말을 따라야만 했기에, 이미 실행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던 그들의 계획을 포기했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면서 하나씩 그들의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스트룀리 씨는 호앙고의 눈앞에서 소년 제피의 손을 묶게 하고는 호앙고에게 자신의 의도는 조카인 그 장교를 이 집에 갇혀 있는 구금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며, 만약 자신이 포르 토 프랭스로 도망가는 길

에 아무런 방해도 없다면, 호앙고의 생명과 그의 아이들의 생명에 아무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고, 그 아이들을 무사히 그에게 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가 가까이 다가와, 억제할 수 없는 감정에 젖어들며, 작별하기 위해 손을 내밀자, 바베칸은 이 손을 세게 밀쳤다. 그녀는 토니를 비열한 여자, 배반한 여자라고 불렀고, 묶여 누워 있던 탁자의 다리 밑에서 몸을 돌리면서, 네가 아직 너의 수치스런 행위를 하고 기뻐하기 전에 천벌이 따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토니는 대답했다. "저는 당신들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저는 백인이며, 여러분들이 붙잡아 둔 그 젊은이와 약혼했어요. 저는 당신들이 공공연하게 적대시하여 싸우고 있는 종족의 일원이며, 또한 저는 하느님 앞에서 그들의 편에 섰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스트룀리 씨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흑인 호앙고를 다시 묶어서 문 기둥에 단단히 동여매게 하고, 보초 한 사람을 붙여 두었다. 그는 어깨뼈가 부러져서 바닥에 기절해 있는 그 하인을 일으켜 세워 데리고 가게 했다. 그리고 그는 호앙고에게, 며칠이 지난 후, 두 어린이 낭키와 제피를 프랑스의 제 1 전초가 있는 성 뤼체에서 데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감정에 사로잡혀, 울지 않을 수 없는 토니의 손을 잡고, 바베칸과 늙은 호앙고의 저주를 받으며, 침실에서 데리고 나갔다.

그 사이에 스트룀리 씨의 아들인 알베르트와 곳프리트는 창문 가에서 싸웠던 최초의 전투를 끝내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들의 사촌 구스타프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구스타프를 지키고 있던 두 흑인의 완강한 저항을 받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들을 제압했다. 그 중 한 놈은 죽어 방안에 쓰러져 있었고, 다른 한 놈은 심한 총상을 입고 복도로 기어나갔다. 두 형제는, 그 중 형이 허벅지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사랑하는 사촌을 구금에서 풀었다. 그들은 서로 껴안고, 그에게 키스를 했고, 그에게 총과 방패를 주고, 환호하면서 그들을 따라, 승리가 결정되었기에 스트룀리 씨가 아마 이미 퇴각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을, 앞쪽의 방으로 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촌 구스타프는 침대에서 반쯤 몸을 일으키고는, 그들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다. 하지만 그는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그들이 건네 준 권총을 잡지 않고, 말할 수 없이 화난 표정을 지으며 오른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그 옆에 앉았던 젊은이들은 어디 아프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한 팔을 두 사람에게 내밀고 말없이 머리를 동생의 어깨에 기대었다. 이를 본 알베르트는 그가 기절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물 한 모금을 떠다 주려고 일어섰다. 그 때 토니는, 소년 제피를 팔에 안고, 스트륌리 씨의 손을 잡고 방안으로 들어왔다. 구스타프는 이 광경을 보고 얼굴 색이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쓰러질 듯 하면서 사촌들의 몸을 꼭 잡았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방금 자신들의 손에서 뺏은 권총으로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기도 전에, 그는 그것을 이미, 화가 나 삐걱삐걱 이를 갈면서, 토니에게 발사했다. 총알은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갔다. 그녀는 고통의 신음 소리가 약해져가면서, 몇 걸음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 소년을 스트륌리 씨에게 넘겨주면서, 그 앞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는 권총을 그녀에게 집어던졌고, 그녀를 발로 차며 창녀라고 소리치고는 다시 침대에 몸을 던졌다. "이, 잔인한 사람아!" 스트륌리 씨와 그의 두 아들들이 외쳤다. 그 젊은이들은 처녀에게로 몸을 굽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는, 이미 이와 비슷한 여러 번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의사의 역할을 잘 해낸 한 늙은 하인을 불렀다. 그러나 그 처녀는, 경련을 일으키며 손으로 상처를 잡고서, 그 친구들을 밀쳤다. 그리고 "그에게 말해요……!" 그녀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내면서 중얼거렸고, 자신을 쏜 그를 가리키면서, 다시 반복했다. "그에게 말하시오……!" 우리가 그에게 무슨 말을 전할까? 스트륌리 씨가 물었을 때, 죽음이 다가와 그녀의 말문을 닫아 버렸다. 알베르트와 콧프리트는 일어서서,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살인을 한 그를 향해 그 처녀가 형의 구원자임을 알아? 또 그녀가 형을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 부모, 재산까지 희생하고, 형과 함께 포르 토 프랭스로 도망치려고 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소리쳤다. —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기에, 그들은 그의 귀에 대고 구스타프! 못들었니? 하고 우뢰 같은 소리를 지르며,

그를 흔들었고,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구스타프는 일어섰다. 그는 피를 흘리며 뒹굴고 있는 처녀에게 눈길을 던졌다. 그리고 이 행위를 야기한 분노도 자연스럽게, 평범한 동정심으로 바뀌어 갔다. 스트륌리 씨는 뜨거운 눈물을 손수건에 흘리면서 물었다. 불쌍한 녀석, 왜 이런 짓을 했니? 사촌 구스타프는 침대에서 일어나, 이마에서 땀을 닦고, 그 처녀를 쳐다보며 이년이 밤에 자신을 수치스런 방법으로 묶었고, 흑인 호앙고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 토니는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묘사할 수 없는 눈길을 하면서 손을 그에게로 뻗쳤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을 내가 묶은 이유는……!" 그러나 그녀는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녀의 손도 또한 그에게 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갑자기 힘이 빠져 다시 스트륌리 씨의 무릎 위에 쓰러졌다. 왜 나를 묶었지? 얼굴이 창백해진 구스타프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물었다. 스트륌리 씨는, 토니의 꼬르륵거리는 숨소리 때문에 한참 동안 중단했다가, 사람들이 그녀로부터 어떤 대답도 얻지 못하자, 말을 이었다. 왜냐하면, 흑인 콩고 호앙고가 도착한 이후, 불행한 너를 구할 어떤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지. 왜냐하면 그녀는 네가 틀림없이 개입할 전투를 피하려고, 이미 자신이 계획한 대로 우리가 급히 달려와 손에 무기를 잡고 너를 구원할 때까지 시간을 벌려고 했기 때문이야. 구스타프는 두 손으로 얼굴에 가렸다. 아이구! 그는 앞을 쳐다보지 않고 외쳤고 발 밑의 땅이 꺼지는 것 같이 느끼며, 그 말씀이 사실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팔로 그녀의 몸을 끌어안고, 고통스럽게 찢어지는 가슴으로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 당신은 나를 오해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라고 토니는 외쳤는데,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아름다운 영혼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구스타프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사촌들이 그를 그 시체에서 떼어놓았을 때, 그는 말했다. 틀림없어! 나는 너를 오해하지 않았어야만 했어.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어떤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너는 나와 약혼을 맹세했지! 스트륌리 씨는 비탄해 하면서 처녀의 가슴을 동여맨 옷자락을 풀어헤쳤다. 그는 몇몇 불완전한 의료 도구를 가

지고 그 곁에 서 있던 그 하인을 격려하며, 자신이 틀림없이 가슴뼈에 박혀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총알을 뽑아내게 하였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모든 노력은 허사였다. 총알의 납은 완전히 그녀를 뚫고 지나갔으며, 그녀의 영혼은 벌써 더 나은 별 나라로 날아가고 없었다. — 그 사이에 구스타프는 창가로 갔다. 그리고 스트룀리 씨와 그의 아들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리고 어머니를 불러 와서는 안 되는지 상의하는 동안에 구스타프는 총알이 장전된 다른 권총으로 머리를 쏘았다. 새로 생긴 이 끔찍한 사건은 친척들의 모든 감정을 완전히 빼앗아 갔다. 이제 구조대가 그에게로 향했다. 그러나 그가 총을 입에 물고 쏘았기 때문에 그 불쌍한 남자의 두개골은 산산이 부셔졌고, 그 두개골의 일부가 벽에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우선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린 사람은 스트룀리 씨였다. 왜냐하면 창문을 통해 햇살이 훤히 비쳤고, 또 그 흑인부하들이 이미 다시 뜰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에 즉시 후퇴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두 시체를, 흑인의 방자한 폭력에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으므로, 널판자 위에 얹었다. 그리고 총을 다시 장전한 후, 슬픔에 잠긴 일행은 갈매기 못으로 출발했다. 스트룀리 씨는 소년 제피를 팔에 안고 선두에 걸었다. 어깨에 시체를 멘 두 명의 튼튼한 하인이 그 뒤를 따랐다. 부상당한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그들 뒤에서 절뚝거리며 따라갔다. 알베르트와 곳프리트는 총의 안전장치를 풀고서 천천히 가는 장례 행렬을 옆에서 따라갔다. 흑인들은 그 일행의 힘이 매우 약하다고 보고, 창과 쇠스랑을 가지고 그들의 집에서 나와, 공격할 태세를 보였다. 그러나 만일을 대비하여 그 일행이 풀어놓았던 호앙고는, 집 계단에 나와 그 흑인들에게 물러서라고 눈짓했다. "성 뤼체에서!" 그는 이미 시체를 메고 성문을 지나가고 있는 스트룀리 씨에게 소리쳤다. "성 뤼체에서!" 스트룀리 씨가 대답했다. 그 후 그 일행은 추적을 당하지 않고 들판으로 나와 그 숲에 도달했다. 갈매기 못가에서, 그들은 가족을 찾았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두 시체의 무덤을 팠다. 그리고 그들은 두 시체의 손에 끼워져 있던 반지를 서로 바꾸

어 끼우고, 조용히 기도를 하면서, 영원한 평화의 보금자리에 시체를 묻었다. 스트륌리 씨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그로부터 닷새 뒤 무사히 성 뤼체에 도착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약속대로 두 흑인 소년을 남겨 놓았다. 그는 포르 토 프랭스가 포위되기 직전 거기에 도착했으며, 그곳의 성벽에서 백인을 위해 싸웠다. 그리고 그 도시가 완강한 저항을 하다가 데살린 장군의 수중에 넘어갔을 때, 그는 프랑스 군대와 함께 영국함대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졌다. 이렇게 하여 그 가족은 유럽으로 건너갔으며, 이후 특별한 재난을 당하지 않고 그들의 조국 스위스에 도착했다. 스트륌리 씨는 남아 있던 자신의 작은 재산으로, 리기(역주: 스위스 중앙부의 산이름) 근처에 땅을 사서 정착했다. 그리고 1807년에 그의 정원 숲 아래에서 하나의 기념비를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조카 구스타프와 그 약혼녀인 성실한 토니를 위해 세운 것이었다.

작가 및 작품해설

작가소개: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1777-1811)는 프로이센의 명문 군인집안의 전통을 이어받아 처음에는 군인의 길을 갔으나 얼마 후 적성에 맞지 않아 문학으로 전향했다. 그가 문학활동을 한 기간은 그의 34세의 짧은 인생에서 약 10년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의 업적은 독일문학사에서 찬란히 빛난다. 즉 그는 독일 단편 소설의 부분에서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고 또 근대 독일 희곡의 장르에서도 괴테나 실러에 못하지 않은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전에 괴테나 실러와 같은 큰 작가의 그늘에 가려 일반독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의 문학적 업적과 재능을 제대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그의 사후 100년이 지나면서이고, 현대의 많은 독일 문학 연구가들은 그를 가장 현대적인 특성을 가진 작가 중의 하나라고 평한다. 그가 쓴 단편소설은 여기에 번역 수록한 "성 도밍고 섬의 약혼"을 비롯하여 "마하엘 콜하스", "O 후

작부인", "칠레의 지진", "주운아이", "결투", "성녀 세실리아 또는 음악의 힘", "로카르노의 거지부인" 등 8편이 있고, 희곡 작품도 "홈부르크 왕자", "깨어진 항아리", "하일브론의 케트헨", "암트피리온", "펜테질리아", "헤르만의 전투", "슈로펜슈타인 일가", "노르만의 왕 로베르 귀스카르" 등 8편이 있다.

작품소개: 이 작품은 클라이스트가 자살하기 얼마 전인 1811년 초에 완성하여 잡지에 연재했다가 다시 그의 소설집에 재수록한 그의 최후의 걸작이다. 소설의 공간적 무대는 성 도밍고 섬이고, 다루어지는 사건은 프랑스가 이곳에 식민통치를 하던 19세기 초의 일이다. 현지의 흑인들은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을 받아 그동안 자신들을 통치한 백인들에게 그들이 저질렀던 포악한 통치를 생각하며 봉기를 일으켰다. 그 결과 흑인들은 도망하는 백인들과 그들의 후손을 무차별적으로 학대하고 살인하는 만행을 이곳저곳에서 자행한다. 그러는 중에 한 백인 장교는 가족과 일행을 데리고 흑인들의 공격을 피해 조국인 유럽으로 피난의 길을 가고 있다. 어느 날 밤에 그 백인 장교는 자신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흑인의 양녀이며 흑백 혼혈의 한 처녀를 만나게 되어 꿈결같은 사랑을 속삭인다. 그렇지만 다음날 그들의 사랑은 흑인인 양부모에 의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혈의 처녀는 밤사이에 몰래 약혼한 자신의 약혼자인 백인 장교를 구하기 위해 기지(機智)를 짜낸다. 그 기지는 마침내 백인을 구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백인 장교는 그녀가 행한 기지를 오해한 나머지 그녀에게 총을 쏜다. 곧 이어서 그는 그녀의 행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고 만다.